

# 가사노동 환경에 있어 젠더 디자인의 방향

## Concepts of Gender Design for Housework Environment

김원진<sup>1)</sup>, 채승진<sup>1)</sup>, 김희선<sup>2)</sup>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디자인공학과

2) 경기대, 명지대 강사

Won-Jin Kim, Sung-Zin Chae, Hee-Sun Kim

Dept. of Industrial Design Engineering,  
Korea Univ. of Technology & Education  
Kyonggi Univ. & Myongji Univ.

• Key words: gender design, housework, home appliance

### 1. 여성의 관점에서 보는 디자인

현대 가정 기술은 여성이 가사노동의 조력자나 위임자 없이도 가정의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활동에 기폭제가 된 것만은 틀림이 없다. 점점 더 많은 수의 여성이 과거의 남성 직업으로 진출하고, 직업 구조 자체가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일의 목록은 변해왔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수많은 가전제품의 도입과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일'로 알려진 가사노동 부담은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이 없다. 이는 기존의 디자인 접근법에 좀더 여성주의적 시각을 도입해야함을 뜻한다. 이런 배경에서 젠더 디자인(gender design)의 개념 정립과 이에 따른 새로운 접근을 제안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가사노동의 역사적 사회적 측면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가사노동이 이루어지는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젠더적 입장을 검토하고, 그 공간을 구성하는 생활가전제품들을 통한 가사노동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여성의 관점에서 디자인을 살펴보았다.

### 2. 가사노동의 역사적, 사회적 접근

#### 2.1 젠더

일반적으로 '젠더(gender)'는 사회적 의미의 성(性)을, '섹스(sex)'는 생물학적인 의미의 성을 뜻한다. 물론 섹스가 생물학적 내용만 지니고 젠더는 생물학을 제외한 사회적, 문화적 내용을 지닌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실천이 생리적 차이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차이가 다시 사회적 관계의 구조화를 조장하는 동력학적인 과정에 초점을 두게 된 것이다. 섹스란 말이 다소 남녀차별적인 이미지를 갖는다면 젠더는 대등한 남녀간의 관계를 내포하며, 평등에 있어서도 모든 사회적인 동등함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김희선, 김원진, 젠더 디자인의 기초개념과 전략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vol.15, 2002.2)

#### 2.2 가정의 산업혁명

원시시대의 노동은 공동체 생활로써 남성은 사냥과 부족 보호에, 여성은 자손을 돌보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성별분업이 있었다. 하지만 개인소유의 개념이 발생함에 따라 이 원시공동체는 해체되었고,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자본주의 사회로 이전해 갔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의 형태는 임금노동으로 바뀌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산업화'라 할 때, 연기를 뿜어대는 공장과 철도, 실새 없이 움직이는 기계들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산업화는 사회구조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산업화로 인한 생산기술의 발달은 산업노동 뿐 아니라 가사노동도 크게 변화시켰다. 그러나 가정이 산업화된 사회로부터의 탈출구이며 되돌아가는 장소로서 이상화되는 상황에서, 가정에서도 밖에서만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대부분

깨닫지 못한다.

가정에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특히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삶과 일이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우리는 이것을 가정의 산업혁명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빨래통에서 세탁기로의 변화는 베틀에서 동력방직기로의 변화 못지 않게 급진적인 것이다"는 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Cowan, 1976) 코완이 주장하는 요점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변화되어온 가정용 도구들은 주부의 일은 증가시키고 남편과 자녀의 가정 내 노동부담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사노동 과정을 재편하였다고 주장했다.

### 3. 주거환경에서 젠더적 입장

"가사노동은 언제나 사적이고 전형적으로 성별 분화된 활동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가사노동 공간을 격리된, 여성노동자가 일하는 곳으로 설계하고 있다."(Hayden, The Grand Domestic Revolution)

19세기 중반의 이상적인 주택은 가정과 일터의 분리를 전제로 하여 가정은 곧 사적인 장소로 간주되었다. 가정을 가능한 한 산업 세계와는 다른 곳이고, 도덕적으로 정직함의 중심이어야 할 장소로 가꾸는 것이 여성의 의무였던 것이다.

"19세기에는 가정이 아름다움과 정신적 고결함의 본거지로 간주되었다면, 20세기 들어와서는 가정의 주요한 기능은 물질적 부와 건강의 원천이라는 관념으로 대체되었다."(Forty, 1986)

아름다운 것보다는 효율성이 가정을 조직화하는 원리가 되고, 부엌이 집의 중심이 되면서 각 방에 부여된 중요성의 순위도 변화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 가정과학운동과 세균감염연구, 과학적 모성사상이 전개됨에 따라, 어머니의 역할과 자녀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개인 및 가족의 위생수준에 대한 기준이 높아졌고,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제조업자들은 가전제품시장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가전제품은 노동시간을 줄여주고 여성들은 자신의 노동을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하인문제도 해결해 준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런 효율적인 가정관리 사고는 주택 설계에도 영향을 미쳐, 가정주부가 노동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공간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부엌의 작업동선을 단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부엌을 실험실로 묘사하는 비유가 유행했다. 부엌은 오직 한 명의 노동자, 즉 주부가 일할 수 있는 크기의 공간으로 아담하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부엌의 크기가 작아졌거나 집 내부의 다른 공간과 동떨어져서 배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엌일의 공동분담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전후(戰後)시기에 사람들은 밝고 개방된 공간을 선호하게 되었다. 공간은 특정 기능에 따라 구분되었지만, 이것은 공간을 각각 분리된 방으로 나누지 않고 구획 짓는 것을 뜻했다. 벽이 없는 설계는 부부의 평등이라는 현대 이데올로기를 고취시키는 것으로 간주되

었다. 하인들이 자취를 감추고, 음식은 마술처럼 식탁에 놓여지는 것이라는 환상이 사라짐에 따라 부엌과 식당이 분리될 이유가 없어져서, 부엌은 더 커지고 집안의 나머지 부분에 활짝 열려있었다. 부엌 공간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서 이런 개방된 설계는 겉으로는 가사노동이 더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듯한 인상을 풍겼지만, 아직도 은연중에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사고가 널리 퍼져 있는 것 같다.

가사노동의 분업은 이런 건축상의 변화만으로 결코 바뀌지 않았다. 가족의 단란함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 방식에 의해서, 함께 활동하는 장소로서 개인의 사생활이 거의 보장되지 않았고, 특히 여성에게는 가족의 욕구에 묻혀 자기만의 방 하나 갖지 못하게 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도 가족은 남성을 위한 서재와 작업실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의 개인 공간을 가지는 경우는 드물며, 여성은 어떤 것이 정확히 자신의 영역인지를 아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어떤 의미에서 여성은 주택 전체를 통제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쓰는 옷장 혹은 화장대 밖에는 개인적으로 소유한 게 아무 것도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여성이 지배하고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부엌인 것이다.

집안의 공간배치나 부엌의 배치 등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온 어린이, 남자, 여자의 역할분담을 반영하고 있다. 가사노동에 대한 이런 역할분담이나 운영방식은 가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사노동을 위한 형태와 공간은 어떻게 계획되고 설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남녀가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부엌디자인을 여성이 주 사용자라는 전제 하에 논의한다면, 부엌에서 여성의 전형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되는데, 과연 가사노동에서 여성은 불평등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디자인 자체가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디자인의 변경을 통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바꿀 수는 있다. 주거 디자인의 실질적 한계를 검토하기 전에 주거생산에 있어서 디자인의 역할을 알아보고 어떠한 의도와 전제가 디자인에 함축될 수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4. 가전제품의 발전과 가사노동의 분담

일반 가정에 도구와 식기 외에 기계적 메커니즘을 적용한 가정용품이 본격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재봉틀(1850년)을 선두로 식기세척기(1864년), 전기세탁기와 진공청소기(1869년)의 발명으로 이어진다. 이후 가정용 축음기의 도입(1898년), 타자기와 소형카메라(1900년), 전화의 도입으로 가전 부문은 일대 성장의 혁명기에 들어서고 이는 지속적으로 확장 성장했다. 1900년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전제품 및 기계제품의 발명이 완료되었을 뿐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가정마다 차이는 있지만, 남녀간의 가사노동의 배분은 사실 맞벌이 가정이나 그렇지 않은 가정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남편이 가사노동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그들은 지속적인 일보다는 간헐적이고 예외적인 일을 한다. 찰스 스톨의 연구에 따르면, 부엌의 자동 쓰레기 처리 장치에 의해 남편과 아이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가 크게 줄고 아내가 거의 혼자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rall, 1982) 식기세척기도 시간 절약하는 유용한 가전제품중 하나이지만, 이를 사용함으로써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주는 비율은 크게 줄어들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새로운 기술은 남성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의 양은 줄이고 여성이 투입하는 시간을 더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Bose, 1984)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은 주부를 힘든 가사노

동에서부터 어느 정도 해방시켜 주었고, 가정생활의 질을 높여주지만 이전에 비하여 반드시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기계들은 정기적으로 세척시켜야 하고 주기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또한 돈들어 구입한 이상 자주 사용해야 한다. 가전기기들은 가사의 표준을 높이고 일의 내용을 변화시키지만 일 자체를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상업용 부엌은 단순하고 기능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내부시설이 훨씬 덜 정교하고 단순한 도구들로 장식되어 있다. 상업용 제품들을 구입하는 사람은 제품과 장이나 노동시간 등 그 제품을 이용할 때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제품의 내구성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와 달리 가정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은 일반적으로 임금이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다른 경제적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 5. 젠더 디자인의 방향

여전히 여성들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시간 소모적인 가사노동의 이러한 문제들은 새로운 가전기기와 같은 주거환경 내의 물리적인 개선과 더불어,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젠더 디자인의 접근방향은 다음과 같은 시각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

먼저, 가사 노동이 여성의 특권이며 배려인 듯 전제를 하는 ‘주부를 위한, 엄마를 위한 인테리어, 가전제품’이 아닌, 가족들의 공동 협조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가사노동을 구성원들이 분담할 수 있는 컨셉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의 디자인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가정내 제품의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가사노동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생각 할 수 있다. 정보혁명은 가정의 자동화를 구현했다. 최근 홈오토메이션(home automation) 시스템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통합시스템 디자인은 가사노동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사작업의 통합적 수행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작업의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이 필요로 한다. 다양한 종류의 가전제품이 특정 작업을 월등히 향상 시켰을지라도 실제 가사노동이 투입되는 부분은 기계들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전후 처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간과정들을 제거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좀더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시스템형 제품의 개발과 디자인이 필요하다.

수많은 생활가전 제품들이 가사노동을 하는데 있어,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개발되며 개선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사노동에서의 여성을 고려한 젠더 디자인으로 의식 전환과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성의 관점을 이해하고, 젠더 의식을 갖는 좀더 유연한 디자인 접근방법이 필요한 때이다.

#### 참고문헌

- 루쓰 코완, 김성희 외 역, 과학기술과 가사노동, 학지사, 1997
- 김대년 외, 여성의 삶과 공간환경, 한울아카데미, 1995
- 주디 왓츠맨, 조주현 역, 페미니즘과 기술, 당대, 2001
- 김희선, 김원진, 젠더 디자인의 기초개념과 전략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vol.15, 2002.2